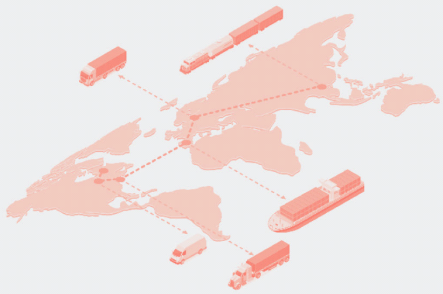
Global Market Report 26-085



호주 방위산업 동향 및 한·호 협력 방향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호주 방위산업 동향 및 한·호 협력 방향



목 차

제1장 호주 방위산업 개요 5

제1절 산업 구조 및 주요 특징 5
제2절 주요 방산 분야 및 프로젝트 7

제2장 호주의 국방정책 및 방산시장 환경 9

제1절 호주의 주요 국방정책과 핵심 방향 9
제2절 호주의 주요 국방 투자 분야 13
제3절 AUKUS 및 국제 안보협력 16
제4절 방산조달 및 시장 진입 환경 20

제3장 주요 기업 및 방산 협력 현황 23

제1절 글로벌 방산기업의 호주 진출 및 협력 현황 23
제2절 한국 방산기업의 호주 진출 및 한·호 협력 현황 26

제4장 한·호 방산 협력 전망 및 우리기업 진출전략 29

제1절 유망 협력 분야 및 시장 기회 29
제2절 한국기업 진출전략 31

요 약

□ **호주 방산은 국방부 수요 중심 구조로, 정부가 핵심 분야를 선별·육성**

- 2024-25년 방위산업 부가가치는 호주 경제 전체의 0.46%, 직접 고용은 약 63,500명
- 국방상 중요도·구축 난이도로 육성 영역을 구분하고, 7대 주권 방산 우선분야(항공기 정비·조선·유도무기 등)에 지원 집중

□ **2026 국가방위전략(NDS)·통합투자계획(IIP)에 따라 방위역량 자립과 방산 기반 강화를 목표로 국방 투자를 확대**

- 2026.4.16. 발표된 NDS·IIP는 2035-36년까지 10년간 국방 재원 A$8,870억(호주달러 기준, 이하 동일)을 계획, 이 중 신규 군사 능력 확보를 위한 IIP 투자는 약 A$4,250억
- 연간 국방 재원은 2026-27년 A$634억에서 2035-36년 A$1,121억으로 증가하며, 국방비는 2033-34년 GDP 대비 약 3.0%(NATO 산정 기준)에 달할 전망

□ **오커스(AUKUS)를 축으로 한 동맹·파트너국과의 공동개발·생산 협력 강화 속에 글로벌 방산기업의 호주 내 생산도 증가**

- AUKUS(호주·영국·미국 3국 기술 공유 파트너십)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이며, 서호주 잠수함 순환배치 전력은 이르면 2027년 운용 예정
- 2026.5. 3국 국방장관은 첨단 역량 공동개발(필러 2)의 첫 프로젝트로 무인수중정 탑재장비 공동개발을 발표
- BAE Systems, Lockheed Martin, Rheinmetall, Mitsubishi Heavy Industries 등 글로벌 방산기업이 호주 내 생산·건조 사업에 참여

□ **조달 제도 개편으로 신규 진입 여건은 개선되는 한편, 현지화와 보안 요건 충족은 필수**

- 2026.7.부터 기성품 우선 검토, 입찰 초기 정보 요건 간소화 등 조달 절차를 개편 중이며, 2027.7.에는 국방조달청을 설립할 예정
- 입찰자에게는 호주 산업 참여 방안을 담은 호주산업역량(AIC) 계획서 제출이 요구되며, 외국 법인은 방산산업보안프로그램(DISP)에 가입할 수 없어 보안등급 사업은 호주 법인 경유가 현실적

□ **한·호 방산 협력은 한화의 지상체계 현지 생산이 중심이며, 단기 공급망 진입과 중장기 동향 점검이 필요**

- 한화디펜스 호주 법인(HDA)이 질롱(Geelong)에서 AS9 자주포를 현지 생산 중이며 레드백은 생산라인 구축 중, 한화그룹은 Austal 지분 최대 19.9% 확대를 조건부 승인받음
- 단기에는 레드백 사업 하도급을 통한 한화 협력사 경로 진입이 현실적이며, 중장기에는 해양·무인·유도무기 분야의 경쟁에 대비해 정부 간 협의 동향을 점검할 필요

Ⅰ. 호주 방위산업 개요

1. 산업 구조 및 주요 특징

□ 산업 규모 및 경제적 기여

○ 호주통계청(ABS) 방위산업 통계(Australian Defence Industry Account) 기준, 방위산업의 직접 기여는 경제 전체의 0.5% 미만

- 2024-25년 방위산업의 국내총부가가치는 A$120.5억(호주달러 기준, 이하 동일)[1]으로 경제 전체 국내총부가가치의 0.46%
- 2016-17년(A$61.4억)의 약 2배, 2021-22년(A$102.1억) 대비 18.1% 증가했으나 전년 대비 증가율은 1.2%로 둔화
- 직접 고용은 63,500명(전체 고용의 0.43%)으로 전년(65,200명) 대비 2.6% 감소, 참여 기업은 5,165개

  * 호주 국방부의 2026 국방산업개발전략(Defence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DIDS)은 방위산업 종사자를 10만 명 이상으로 집계

○ (업종별) 전문·과학·기술서비스 A$50.4억(42%), 제조업 A$21.9억(18%), 건설 A$17.7억(15%)이 전체 국내총부가가치의 75%

- 방산 제조업 국내총부가가치는 2021-22년 대비 34.9% 증가
- 직접 고용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 22,100명, 건설 12,500명, 제조업 12,400명 순

○ (지역별) 뉴사우스웨일스(NSW) A$32.4억, 빅토리아(VIC) A$23.5억, 호주수도준주(ACT) A$21.1억, 남호주(SA) A$20.2억 순

- 남호주는 2020-21년 A$10.5억에서 A$20.2억으로 약 2배 증가했으며, 직접 고용도 2019-20년 5,800명에서 11,300명으로 증가

  * DIDS는 남호주의 방산 인력 수요가 핵추진잠수함 사업과 해군 조선 사업에 의해 견인된다고 설명

- 서호주(WA)는 A$8.5억(직접 고용 4,000명)

○ (국방 지출의 국내 환원) 2024-25년 국방 역량 프로그램(신규 군사 능력 확보 + 기존 전력 유지) 지출의 64%(A$225억)가 호주 내에서 집행

- 신규 군사 능력 확보 A$92억(국내 비중 51%), 기존 전력 유지 A$133억(국내 비중 78%)

1) 호주 정부 문서는 금액을 "$"로 표기하며, 본 보고서는 이를 A$(호주달러)로 표기함.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2026.11.11. 기준) A$1 = 922.31원

□ 공급망 구조: 3개 계층(Tier)

○ 호주 정부는 방산 공급망을 Tier 1~3의 3개 계층으로 구분

- 기업 규모가 Tier를 결정하지는 않으나 Tier 1은 대기업이 많고 중소기업은 주로 하위 Tier에 분포
- 정부는 전 계층의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며, 회복력과 혁신을 담당하는 Tier 2(2a·2b)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

○ 정부의 우선 지원 대상은 아래 요건을 갖춘 '성숙·건전' Tier 2·3 기업

- 성숙한 관리체계와 품질경영체계, 건전한 재무구조, 인접 시장 또는 방산 수출로 발생하는 수주잔고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 상시 연구개발(R&D) 투자, 국방 사업에 필요한 보안인증

□ 산업의 주요 특징

○ (정부 수요 주도) 국방부가 주된 고객으로, 통합투자계획(IIP)[2]을 통한 안정적 수요 신호가 산업 육성의 핵심 수단

○ (선별적 육성) 국방상 중요도와 국내 구축 난이도를 기준으로 '확대(Grow)·유도(Guide)·모니터링(Monitor)·무조치(No Action)' 4개 영역으로 분류

- 확대 영역은 목표를 정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도 영역은 계약 시 호주 산업역량(AIC) 제도[3]를 통해 국내 산업 활용을 요구

○ (국제 공급망 통합) 호주 방위산업은 동맹·파트너의 공급망과 통합되어 있으며, 정부는 공동개발·공동생산·공동유지를 통해 자주성을 추진

- 2024.4. Rheinmetall[4] 호주 법인의 Boxer 중무장 차량 100대 이상 독일 수출 예정, 2025.3. Kongsberg의 NSM·JSM[5] 미사일 공장 뉴캐슬 인근 설립 계획
- 2025.12. Lockheed Martin 호주 법인의 GMLRS[6] 미사일 남호주 공동생산 개시, 2026.4. Mitsubishi 중공업의 개량형 모가미급 호위함[7] 3척 인도 계약
- 2026.6. BAE Systems Australia의 수평선 너머 레이더(Over-the-Horizon Radar, OTHR) 기술 수출(캐나다 북극 OTHR 구축 지원)

---

2) 통합투자계획(Integrated Investment Program, IIP): 호주 국방부가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ce Strategy, NDS)과 함께 발표한 2035-36년까지의 국방 투자계획
3) 호주산업역량(Australian Industry Capability, AIC) 제도: 호주 국방부가 국방 조달 계약자에게 호주 산업 참여 방안을 요구하는 제도
4) Rheinmetall: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방산기업으로 장갑차·전차용 무장·탄약 및 방공시스템을 개발·제조
5) NSM(Naval Strike Missile): 해군 타격 미사일, JSM(Joint Strike Missile): 합동타격미사일
6) GMLRS(Guided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유도형 다연장로켓시스템
7) 모가미급 호위함(Mogami-class frigate): 일본 미쓰비시중공업(MHI)이 건조하는 최신형 다목적 호위함

○ (지원제도) 호주 정부는 AIC, 글로벌공급망(Global Supply Chain, GSC), 보조금, 방위산업 지원센터(Defence Industry Hub)를 통해 업체를 지원

- GSC 프로그램은 참여 글로벌 방산 주계약업체(prime)[8]가 7개에서 13개로 늘었으며, 호주 업체 360개에 총 A$25.8억 이상의 계약이 제공
- 방위산업 개발 보조금은 2년간 214건 A$7,360만이 지급되었고, A$8,000만이 추가되어 2030년까지 총 A$2.5억 규모로 운영할 계획
- 신규 진입 기업의 첫 창구로 방위산업 지원센터를 운영

○ (수출) 호주 국방전략판매국(Australian Defence Strategic Sales Office, ADSSO)을 통해 우선 수출 역량의 해외 판매를 지원

- 우선 수출 역량에는 Bushmaster 방호기동차량, 호주 수평선 너머 레이더망(Jindalee Operational Radar Network, JORN) 등이 포함
- 2026 DIDS에서 고스트 샤크(Ghost Shark) 대형 무인잠수정(XL-AUV)이 우선 수출 대상에 추가

2. 주요 방산 분야 및 프로젝트

□ 7대 주권 방산 우선분야

○ 2024 DIDS에서 제시된 7대 주권 방산 우선분야가 2026 DIDS에서도 유지되었으며, 분야별 국방부 수요가 보다 구체화됨

- 호주 정부는 건설, 연료 생산, 핵심광물·전략소재가 자주성 제고에 기여하지만 우선분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

<호주 7대 주권 방산 우선분야>

우선분야	주요 내용
항공기 정비·수리·분해검사·개량	항공기 가용성 확보와 공급망 안정, 가능한 범위에서 미국 공급망 의존도 축소
지속적 해군 조선·유지	주계약업체(Prime)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전 Tier의 역량을 제고하며 핵추진잠수함 건조·유지 포함
제병협동 지상체계 유지·강화	2026~2030년 국내 정비·수리·개량 및 수출 역량 확대
유도무기·폭발물·탄약 국내 제조	호주 업체가 동맹·파트너와 호환·인증 가능한 부품·서브 시스템을 제조하도록 투자

8) 주계약업체(prime): 호주 국방부와 직접 계약을 맺고 사업을 주도하는 업체

자율체계 개발·통합	소모형·해양 무인체계 등을 시제품에서 양산형 역량으로 발전시키는 지속 역량 개발·인도 모델 추진
전장인식·관리체계 통합	장거리 타격, 수중전, 통합 공중·미사일방어 체계의 통합(세부 내용은 보안상 제한)
시험평가·인증·체계 보증	해상·지상·공중·디지털 영역의 시험 환경, 공통 프레임워크, 전문인력 확보

자료원: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 2026 Defence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 분야별 주요 프로젝트

<호주 분야별 주요 방산 프로젝트>

분야	주요 프로젝트	현황
해군 (수상)	개량형 모가미급 호위함 11척	초기 3척은 일본(MHI)에서 건조하는 계약이 체결, 이후 물량은 서호주에서 건조 예정
	헌터급 호위함[9] 6척	오스본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며 2026 NDS에서 총 6척으로 명시
해군 (수중)	AUKUS 핵추진잠수함[10]	제2장 제3절 참조
	고스트 샤크 대형 무인잠수정[11] 등	2025.9 A$17억 규모 5년 계약 체결
육군	LAND 400 3단계[12] 레드백 보병전투차량 129대	한화디펜스 호주 법인(HDA)이 질롱 H-ACE[13]에서 현지 생산
	LAND 8116[14] AS9 자주포·AS10 탄약 운반차	HDA 현지 생산, 2026.2 호주산 AS9 첫 3대 공개
공군	MQ-28A 고스트 배트[15] 등 무인항공기	IIP의 원정형 항공작전 분야에 포함
유도무기	GMLRS	Lockheed Martin Australia가 2025.12. 남호주에서 공동생산 개시
	NSM·JSM	Kongsberg 호주 법인이 뉴캐슬 인근 공장 건설 중(2025.3. 계약), 2027년 제조 개시 예정
인프라	헨더슨 방위단지[16], 오스본 조선소[17]	헨더슨 방위단지에 A$120억 투자계획

자료원: Defence, 2026 Defence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Defence, Navy News "Focus on maritime strength"(2026.4.17.); Hanwha Defence Australia 웹페이지(2026.11.9.); Geelong Times(2026.3.5.)

9) 헌터급 호위함(Hunter-class frigate): BAE Systems Type 26 설계를 기반으로 대폭 개조하여 남호주 오스본에서 건조
10) 핵추진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하는 잠수함(AUKUS를 통해 호주가 도입하는 잠수함은 재래식 무기로 무장하며 핵무기는 탑재하지 않음)
11) 고스트 샤크(Ghost Shark): Anduril Australia가 개발·생산하는 대형 무인잠수정(XL-AUV)
12) LAND 400 3단계: 호주 육군의 보병전투차량 도입 사업(한화 레드백(Redback)이 선정됨)
13) H-ACE(Hanwha Armoured Vehicle Centre of Excellence): 한화가 빅토리아주 질롱에 구축한 장갑차량 생산·정비 시설
14) LAND 8116: 호주 육군의 자주포(방호형 기동화력) 도입 사업(AS9 헌츠맨 자주포와 AS10 장갑탄약보급차를 한화가 공급)
15) MQ-28A 고스트 배트(Ghost Bat): 보잉 호주법인이 호주 공군과 개발한 유·무인 협동전투기
16) 헨더슨 방위단지(Henderson Defence Precinct): 서호주 퍼스 인근 헨더슨 지역의 방산·조선 집적 단지
17) 오스본 해군조선소(Osborne Naval Shipyard): 남호주 애들레이드 인근의 해군 조선소

Ⅱ. 호주의 국방정책 및 방산시장 환경

1. 호주의 주요 국방정책과 핵심 방향

□ 호주의 2026 국가방위전략(NDS) 및 통합투자계획(IIP)

○ 개요

- 호주 정부는 2026.4.16 「2026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ce Strategy, NDS)」과 「2026 통합투자계획(Integrated Investment Program, IIP)」을 발표
- 2024 국가방위전략(NDS)의 양대 축(국가방위, 거부전략)을 유지하면서 ▲자주성 제고 ▲주권적 방위산업 기반 확대 ▲군·범국가 대비태세 및 회복력 강화 ▲인도·태평양 양·다자 안보협력 강화를 구체화

  * 호주 NDS는 2년 주기로 발표되며, 차기 NDS는 2028년 발표 예정

○ 호주 정부의 전략환경 인식

- 호주 정부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전환기에 있다고 보고, 향후 10년은 분열·경쟁·무질서가 두드러지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

  * 2026 NDS는 2024 NDS가 진단한 전략환경 악화(deteriorating) 추세가 확대심화되고 새로운 전략적 도전이 나타났다고 평가
- 강압과 무력 사용이 국정 수단으로 더욱 두드러지고, AI·자율체계 등 기술 발전이 전쟁 양상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
- 정부는 글로벌 방산 공급망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필요한 경우 해외 기성품을 활용하되 국방상 가장 핵심적인 산업 역량은 자국 내에서 확보하는 방향을 추진

□ 국방정책의 양대 축: 국가방위와 거부전략

○ 국가방위(National Defence)

- (개념) 전쟁 위협과 강압 가능성 등 전략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역량 전반을 동원해 안보를 보호하고 이익을 증진하는 범정부·범국가 접근

  * 군사 전략 개념이던 '호주 방어(Defence of Australia)'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정의
- (부처별 이행) 총리내각부(민간 대비태세 총괄), 외교통상부(통합적 국가전략), 내무부(국가 회복력), 산업과학자원부(공급망·국내 제조),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와 국방부(국가연료위원회 공동 운영)
- (국방 부문의 역할) 정부 내에서 군사력을 건설·운용하는 유일한 부문으로서 국가방위에서 고유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는 호주 국방군(ADF)[18]의 태세·역량·구조에 대한 투자를 지속

18) 호주 국방군: Australian Defence Force, ADF

- (중점 분야) 호주는 국가방위 실현을 위해 아래 9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며, 이 중 방위산업 기반·공급망 회복력·물류·인프라·인력 분야는 방산시장 환경과 직결

<호주 국가방위(National Defence)의 9대 중점 분야>

분야	주요 내용
경제 안보	- 안보·경제·사회정책이 중첩되는 분야에 우선 투자하여 주권·안보·번영을 함께 제고
통합적 국가전략	- 외교와 통상, 자유무역 증진을 통해 역내 안보에 기여
방위산업 기반	- 핵심 무기·탄약의 생산·개량·유지·보충이 가능한 역량에 투자를 집중 - 획득, 유지, 국제 산업협력, 통상, 외국인 투자 등 정책 수단을 조율
공급망 회복력	- 연방·주·산업계가 협력해 취약점을 보완 - 국내 생산 확대, 공급원 다변화, 해상교통로 의존도 완화
물류·인프라	- 북부 거점 장기 작전을 뒷받침하는 기지, 도로, 철도, 항만, 통신망, 연료·에너지 안보 강화
인력·기술	- 교육·직업훈련(도제 인센티브, 무료 TAFE 등)을 활용해 방위·제조·건설·물류·보건·기술 분야 인력 확보
정보	- 전략적 경보와 군사작전을 뒷받침하는 정보 역량 확보
혁신·과학기술	- 연구 협력과 신기술을 통해 차세대 역량의 전력화를 가속
민간 대비 태세	- 정부 기능 연속성, 필수 재화·서비스 공급, 사회 결속, 국방 작전에 대한 증원 지원

자료원: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 2026 National Defence Strategy, 시드니무역관 정리

○ 거부전략(Strategy of Denial)

- (정의) 분쟁을 억제하고, 잠재적 적대세력이 호주를 강압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며 역내 안보·번영을 지원하고, 우호적인 역내 전략 균형을 유지
- (적용 범위) 해양·지상·공중·우주·사이버 5개 영역 전반
- (이행 방식) 호주 국방군(ADF)의 신뢰할 수 있는 능력·규모·의지를 보여주어, 잠재적 적대세력이 호주에 대한 무력 사용이나 군사적 강압을 시도할 의지와 자신감을 약화
- (협력) 미국 및 핵심 파트너와 협력해 군사적 강압과 분쟁에 대한 억제를 강화
- (주요 군사 관심지역[19]) 북동인도양에서 해양 동남아를 거쳐 태평양에 이르는 인접 지역(호주 본토, 인구 거주 해외 영토, 북부 접근로 포함)

  * 다만 사이버·우주·핵·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의 발전으로 호주의 안보 이익은 지리적 요인만으로 제한되지 않음

19) 주요 군사 관심지역(Primary Area of Military Interest, PAMI): 호주가 국방 계획에서 최우선으로 삼는 지리적 범위 (2026 국가방위전략(NDS)은 호주 본토, 인구 거주 해외 영토, 북부 접근로를 포함하는 인접 지역으로 규정)

- (전략목표 체계) 전략환경 조성(Shape)·억제(Deter)·신뢰성 있는 군사력 대응(Respond)의 3대 전략목표 체계를 유지

□ 호주 국방군(ADF)의 5대 임무

○ 거부전략 이행을 위한 ADF 5대 임무 부여

- 호주 정부는 경제적 연계 보호와 우호적 역내 세력균형 유지를 중시하며, ADF가 5대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지시
- 거부전략과 5대 임무는 전력 구조 기획을 비롯한 국방 활동 전반의 기준이 됨
- 5대 임무는 아래 표와 같으며, 호주 및 인접 지역 방어가 첫째 임무임

<ADF 5대 임무>

임무	주요 내용
호주 및 인접 지역 방어	군사 공격으로부터 영토·국민·경제적 연계를 방어
북부 접근로를 통한 전력투사 시도를 차단해 억제(deter)	호주를 방어할 능력·규모·의지를 갖추고 있음을 보이는 한편, 동맹·파트너와 함께 인도·태평양 공동억제(collective deterrence)에 기여
대(對)지역·세계 경제 연계 보호	강압과 피해로부터 해상 접근로 등 경제적 연계를 보호하고 국내외 위협에 대응
인도·태평양 집단안보 기여	해양영역인식 강화, 역내 훈련·연습, 재난구호·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역내 안정에 기여
국제규범 수호 기여	국제법상 권리 행사와 국제 평화·안보 활동을 통해 다자 체제의 규범 수호에 기여

자료원: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 2026 National Defence Strategy, 시드니무역관 정리

□ 2026 국가방위전략(NDS)의 5대 핵심 방향

○ 자주성(Self-reliance) 강화

- (정의) 동맹·파트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해, 위기·분쟁 시 신뢰할 수 있는 군사력을 운용·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
- (성격) '자급자족(self-sufficiency)'을 의미하지 않으며, 동맹·파트너와의 협력을 병행하며 핵심 의존성을 장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
  · 호주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통해 보장받을 영역을 구분
- (수단) 거부전략 이행을 위한 전력 획득·유지 계획의 우선순위화, 핵심 무기·탄약을 생산·유지할 수 있는 자국 방산 기반 강화, 국제 산업 파트너십 다변화

○ 통합·집중 전력(Integrated, Focused Force) 구축 및 필요 역량의 신속 도입

- (개념) ADF를 다양한 우발 상황에 대응하는 '균형 전력'에서, 호주의 가장 중대한 전략적 위험에 집중하고 5개 영역(해양·지상·공중·우주·사이버) 및 국제 파트너와 통합된 전력으로의 전환을 지속
- (집중) 가장 큰 전략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아래 6대 핵심 능력의 확보에 집중
  · ▲전력 투사 ▲잠재 위협에 대한 억제력 확보 ▲ADF 전력·핵심 지원 인프라 방호 ▲장기 전투작전 지속 ▲핵심 군사 관심지역 지속 상황인식 유지 ▲의사결정 우위 확보
- (도입 방식) 완벽한 체계를 기다리기보다, 요구 시한 안에 필요한 작전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소 실행 가능 능력(MVC)[20]을 신속히 도입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

○ 주권적 방위산업 기반 강화

- 가장 치명적인 무기·탄약의 생산·개량·유지·보충이 가능한 역량에 투자를 집중하고, 지원 대상은 업종 전반이 아닌 핵심 기업·분야로 선별
- 2026 DIDS에서 2024년 선정한 7대 방산 우선분야를 유지하되, 분야별 수명주기 단계에 맞춰 수요 방향(수요 신호)을 구체화
- 국내 역량이 부족한 부문은 동맹·파트너와의 공동개발·공동생산·공동유지로 보완

○ 대비태세 및 회복력 강화

- 국가 차원에서 공격·교란을 견디고 복구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연방정부가 주·준주 정부, 산업계와 협력해 보건, 핵심 인프라, 사이버 등 위험이 큰 분야를 관리
- 국방 연료 회복력 프로그램(Defence Fuel Resilience Program)을 통해 연료 저장 용량과 비축을 확대(기투자 A$20억, 향후 10년간 최대 A$48억 추가 투자계획)

○ 파트너십 확대 및 다변화

- 공동억제(collective deterrence)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내 양자·다자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
- 미국·영국 등 AUKUS 파트너와의 협력을 유지하는 한편, 일본(Mogami급 호위함)·EU(안보·국방 파트너십) 등과 더 다양한 국제 산업 파트너십과 공급망을 구축해, 집중된 해외 공급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완화

<주요 파트너별 협력 방향>

파트너	협력 방향(NDS 기준)
미국	- 동맹을 안보의 근간으로 규정 - 기술이전·정보공유·공동개발·공동생산·공동유지를 통한 체계 접근 확대

20) 최소 실행 가능 능력(Minimum Viable Capability, MVC): 요구 시한 안에 운용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 이상적인 체계를 기다리기보다 당면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는 능력을 먼저 확보하고, 이후 반복적 개량으로 보완하는 접근

영국	- AUKUS와 헌터급 호위함 사업 등으로 산업기반을 장기간 연계
일본	-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 개량형 모가미급 호위함 선정을 계기로 전략 조율, 정보공유, 통합 공중·미사일방어·수중전 협력 심화
한국	- 역량, 방위산업, 혁신·과학기술 분야 협력과 역내 훈련·정보교류 등 호주 이익에 부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선별적 협력 모색
인도	- 최상위 안보 파트너. 해양 영역 인식, 방산 산업 협력 등 실질 협력 확대
동남아시아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조약),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훈련·연습, 정보공유 확대
유럽연합(EU)	- 신규 안보·국방 파트너십을 통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신규 방산 조달 기회를 창출

자료원: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 2026 National Defence Strategy, 시드니무역관 정리

2. 호주의 주요 국방 투자 분야

□ 투자 방향 개요

○ 2026 통합투자계획(IIP)의 성격

- 통합·집중 전력과 6대 핵심 능력을 구현하기 위한 투자계획으로, 호주 정부의 11대 투자우선순위를 계속 중점 추진
- 2024년 도입한 군 영역(domain) 중심에서 능력 중심으로의 전력설계 전환을 유지

○ 투자 확대 규모 및 배경

- 2026 IIP는 2035-36년까지 10년간 약 A$4,250억을 투자하며, 2024년 계획 대비 4년간 A$140억, 10년간 A$530억을 추가
- 정부는 2024 NDS 이행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자립 강화, 방산 기반 회복력, 더 다양한 국제 산업 파트너십 구축을 뒷받침

<호주 2026 IIP의 11대 투자우선순위>

우선순위	투자 목적	10년 투자 규모
수중전	전력 투사, 억제력 확보, 지속적 상황인식 등 광범위한 임무 수행	A$940억~1,300억
해상거부·국지적 해상통제	필요시 특정 해역의 사용을 거부하고 ADF의 행동의 자유를 확보	A$620억~770억
상륙작전이 가능한 제병협동 지상전력	연안 기동과 전략 거점 확보, 신속한 안정화·재난구호 작전 지원	A$480억~590억
원정형 항공작전	핵심 군사 관심지역으로의 전력 투사로 억제하고 지속적 상황인식 유지	A$340억~410억

우주·사이버 역량	상황인식, 전력 투사, 의사결정 우위 강화	A$270억~380억
표적획득·장거리 타격	더 먼 거리에서 전력투사 시도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 확대	A$280억~350억
유도무기·폭발물(GWEO[21]) 체계	재고 확충, 공급망 강화, 국내 제조 역량 구축	A$260억~360억
미사일 방어	핵심 국방 인프라·시설·ADF를 장거리·고속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	A$210억~300억
전구(theatre) 군수	전력 집중과 장기 작전 지속 지원	A$140억~210억
전구 지휘통제	통합 ADF의 신속한 계획·실행, 네트워크 교란 시 회복력 확보	A$140억~190억
북부지역 기지	전력 투사 및 교란 상황에서도 작전 지속	A$130억~160억

자료원: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 2026 Integrated Investment Program, 시드니무역관 정리

□ 주요 투자 사업

○ 11대 우선순위의 군종·영역별 이행 사업

- NDS는 11대 투자우선순위를 각 군종·작전 영역별 세부 체계와 플랫폼으로 구체화하여 제시
- 호주는 기존의 군종별 전력구조 중심에서 벗어나 임무와 능력 중심의 투자방식을 강화하고 있으며, 장거리 정밀타격·미사일 방어·지휘통제·GWEO 등 복수 군종이 공동 활용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다수 사업은 AUKUS 핵추진잠수함, 헌터급 호위함, 모가미급 호위함 등 이미 선정된 주요 사업의 전력 증강·일정 가속에 초점
- 국내 방산기반 강화가 주요 축으로, 상륙정 국내 건조, GMLRS·NSM·JSM 국내 생산, 개량형 모가미급 호위함의 후속 물량 서호주 건조 등을 추진

<군종·영역별 주요 도입 방향>

구분	핵심 방향	주요 사업(NDS 명시)
해군	타격 능력이 강화된 수상·수중 전력	AUKUS 핵추진잠수함, 헌터급·모가미급 호위함, 호바트급 구축함 개량, 무인 수상·수중체계, 장거리 함정 타격무기 확대
육군	연안 기동 및 장거리 정밀화력 강화	중·대형 상륙정 헨더슨 건조 중(중형 생산 중, 대형 2026.11. 생산 개시), HIMARS 및 정밀타격미사일 확대, 전투차량·공격헬기 현대화, 드론 대응 및 지상기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21) GWEO(Guided Weapons and Explosive Ordnance): 유도무기 및 폭발물 체계. 호주가 재고 확충, 공급망 강화, 국내 제조 역량 확보의 3축으로 추진하는 투자우선순위이자 주권 방산 우선분야

공군	장거리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 역량 강화	장거리 대함·공대지 미사일 도입, F/A-18F 전투기용 극초음속 무기 개발, 조기경보통제기·무인기 전력 강화, 공중전투관리체계 구축
우주	우주 기반 감시·통신 및 우주통제 강화	다중궤도 위성통신, 심우주 레이더, 지리공간정보 및 우주통제 역량 강화
사이버	정보·통신체계의 회복력과 사이버 대응역량 강화	REDSPICE, 국방 통신망 고도화, 사이버 인력 및 임무체계 확충
공통 지원	장기·고강도 작전 지속 기반 강화	유도무기·탄약 생산 및 비축, 군수 역량 강화, 북부지역 기지 확충, 전구 지휘통제 및 국방정보 역량 강화

자료원: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 2026 National Defence Strategy, 2026 Defence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시드니무역관 정리

○ 유도무기·폭발물(GWEO) 체계: 국내 제조 연계 투자

- (투자 규모) 10년간 A$260억~360억
- (추진 방향) 재고 확충, 산업·국제협력, 국내 제조를 추진하며, 7대 방산 우선분야의 하나
- (자립 능력) 선별한 무기를 국내에서 생산·정비·수리·분해정비 할 수 있는 능력 확보
- (국내 제조) GMLRS는 2025.12. 남호주에서 공동생산을 개시하였으며 NSM·JSM은 뉴캐슬 인근 공장에서 2027년부터 생산 예정
- (저장·배분) 늘어나는 재고를 수용할 저장·배분 시설을 확충

□ 국방 재원 및 투자 규모

○ 호주의 향후 10년 국방 재원

- 호주 정부는 2035-36년까지 향후 10년간 총 A$8,870억(ASD·호주잠수함청 등 포함)의 국방 재원을 계획
- 이 중 IIP의 능력 투자는 약 A$4,250억 규모(정부 계획 기준)
- 연도별 재원은 2026-27년 A$634억에서 2035-36년 A$1,121억으로 증가
- 국방비/GDP 비중은 2033-34년 약 3.0%로 전망(NATO 산정방식 기준)

<국방 재원 추이(2026-27~2035-36)[23]>

연도	2026-27[22]	2027-28	2028-29	2029-30	2030-31	2031-32	2032-33	2033-34	2034-35	2035-36
재원(A$억)	634	673	733	801	869	901	966	1,067	1,109	1,121

자료원: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 2026 National Defence Strategy, 2026 NDS Budget Factsheet; 2026-27 Portfolio Budget Statements

22) 2026-27년 총액은 문서별 산정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름(NDS 재원 A$634억, 예산 팩트시트의 자체수입 포함 계획 지출 A$645억, 2026-27 예산서의 행정 특별지출 포함 총 가용재원 A$664억)
23) 호주신호국(ASD)·호주잠수함청(ASA)·핵안전규제청(ANNPSR) 포함. NDS 발표 시점 기준

○ 추가 투자

- 2026 NDS를 통해 기존 2024 NDS 투자계획에 더해 추가 재원을 투입하고, 이를 IIP에 반영
- 향후 4년간(2026-27~2029-30) A$140억, 10년간(~2035-36) 약 A$530억을 추가 투자할 계획
  · 재원은 국방 예산, 부동산 매각 순수익, 가치가 있는 경우의 대체금융으로 구성
- 2024 NDS의 추가 투자와 합산하면 4년간 A$300억, 10년간 A$1,170억 규모
- 2026 NDS 추가 투자에는 헨더슨 방위단지(Henderson Defence Precinct)에 대한 초기 A$120억이 포함되며, 오스본 해군조선소(Osborne Naval Shipyard) 호주 해군 인프라 투자는 제외

○ 대체금융

- 필요한 규모와 속도로 국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투자를 활용하며, 정부기관을 통한 지분형 금융과 민간 금융 등 대체금융 방식을 활용
- 향후 4년간 약 A$50억, 10년간 약 A$150억 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대체금융 방안을 우선 개발
  · 주요 대상: 국방 부동산, 헨더슨 방위단지, 유도무기·폭발물(GWEO) 사업

○ 국방 지출 전망

- 향후 국방 지출은 신규 군사 능력 확보, 기존 전력 유지, 인력 비용 모두 증가할 전망

<국방 지출 구조>

구분	2024-25	2026-27	2029-30	2035-36
신규 군사 능력 확보	A$192억	A$224억	A$299억	A$475억
기존 전력 유지(Sustainment)	A$180억	A$198억	A$263억	A$337억
인건비	A$174억	A$194억	A$219억	A$283억

주: 2029-30년은 중기 계획 지출액, 2035-36년은 장기 전망치 기준이며, 운영·작전비는 제외
자료원: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 2026 National Defence Strategy, 2026 NDS Budget Factsheet

3. AUKUS 및 국제 안보협력

□ 오커스(AUKUS)의 성격과 구조

○ AUKUS 개요

- 호주·영국·미국이 수십 년간의 방위 능력·기술 협력을 토대로 3국 각자와 공동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술 공유 파트너십
- 3국 산업계·학계의 역량을 결집해 상대의 전력 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첨단 군사 역량을 개발하고, 관련 제도와 절차를 3국 간 조율

<AUKUS의 구조>

구분	목적	주요 추진 사항
필러 1 (Pillar 1)	재래식 무장 핵추진잠수함 확보	- 3단계 최적 경로(Optimal Pathway) 추진 - 2027년 서호주 잠수함 순환배치 부대 설치, 버지니아급 3척 기존함 도입으로 간소화(2026. 5. 30. 국방장관회의)
필러 2 (Pillar 2)	첨단 국방 역량 공동개발	- 수중전, 극초음속·대극초음속, AI·자율체계, 전자전, 양자기술, 고도화된 사이버 역량 강화 - 첫 시그니처 프로젝트로 UUV 탑재장비·지원체계 공동개발(2027년부터 인도)
산업기반 협력	3국 방위산업 기반 연계·강화	- 기술이전 규제 완화, 조달·혁신체계 조율, 산업계 및 민간투자 참여 확대

자료원: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 2026 National Defence Strategy; AUKUS 국방장관공동성명, 시드니무역관 정리

○ 추진 및 운용 원칙

- (핵 비확산·안전) 3국은 잠수함 도입이 안전·보안·비확산에서 최고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약속하고, 기존 비확산 의무를 재확인하며, 호주와 IAEA 간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 및 추가의정서 틀 안에서 추진
- (호주 주권 능력) 호주가 소유·운용·정비·규제하는 주권적 능력으로 구축하며, 호주 해군 장교가 ADF 지휘체계 아래에서 지휘하고 호주 정부가 완전한 통제권을 보유

□ 필러(Pillar) 1: 핵추진잠수함 확보

○ 추진 방향

- 재래식 무장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통해 호주의 억제 능력을 높이고 인도·태평양 안정에 기여
- 최적 경로(Optimal Pathway)는 3단계(미·영 잠수함 순환배치, 버지니아급[24] 잠수함 도입, SSN[25]-AUKUS 건조)로 이행
- 호주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사업으로, 인력·산업 역량·인프라·교육훈련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
- 2025.12. 미 국방부는 AUKUS 검토를 완료하고 추진 방향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행 기반을 더 견고히 할 기회를 확인(RNZ, 2025. 12. 5.)
- 2026.5. AUKUS 국방장관회의에서 2027년 서호주 순환배치 부대 설치 준비를 마무리하고, 버지니아급 도입을 기존함 3척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환영

24) 버지니아급: 미국 해군의 핵추진 공격잠수함급으로, AUKUS 2단계에서 호주에 3척 판매(필요 시 2척 추가 검토)
25) SSN(Ship Submersible Nuclear): 핵추진 공격잠수함의 약어(AUKUS 문서는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핵추진잠수함을 SSN으로 표기). SSN-AUKUS는 영국의 차세대 설계를 기반으로 3국 기술을 통합하는 3국 공동 인도 프로그램

○ 계획 및 이행 현황

<필러 1 단계별 계획 및 이행 현황>[26]

단계	계획(NDS 기준)	최근 진행
1단계 방문 확대·순환배치	- 미국(2023~)·영국(2026~) 잠수함 방문 확대 - 이르면 2027년부터 서호주 순환배치 전력(SRF-West[27]) 운용(미국 최대 4척, 영국 최대 1척)	- 2026.5.30. SRF-West의 2027년 설립 준비 완료 발표(호주는 스털링 기지 인프라 등에 최대 A$80억 투자계획) - 2026.10. 미국 버지니아급 USS Colorado를 첫 배치함으로 지정(2027년 말 배치)
2단계 버지니아급 인도	- 2030년대 초부터 버지니아급 3척 판매(필요 시 2척 추가)	- 2026.5.30. 운용 중(in-service) 버지니아급 3척을 도입하는 간소화 방안을 환영(제안 단계)
3단계 SSN-AUKUS	- 영국 설계(미국 기술 접목), 영국·호주 건조 - 호주 건조 1호함 2040년대 초 인도	- 2026.5.30. SSN-AUKUS 설계·인도에 상당한 진전이 있음을 인정 - 호주는 남호주 신규 잠수함 건조소에 초기 A$39억, 헨더슨 방위단지에 초기 A$120억 투자계획 발표

자료원: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 2026 National Defence Strategy 6.11항; AUKUS Defence Ministerial Joint Statement(2026.5.30.); Defence, Joint Statement, USS Colorado (SSN 788) Announced as First Submarine for Submarine Rotational Force-West(2026.10.27.)

□ 필러 2: 첨단 역량 공동개발

○ 추진 방향 및 이행 현황

- 첨단 기술을 시의적절한 군사 능력으로 전환하고 근미래 전투 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인도를 가속하며, AUKUS 3국 군대의 상호운용성을 강화
- 수중전, 극초음속·대극초음속, AI·자율, 전자전, 양자, 고도화된 사이버 분야의 공동 개발에 참여
- 첨단전략능력가속기구(ASCA)[28]가 AUKUS 혁신 챌린지 등을 통해 필러 2 우선 역량의 공동개발을 지원
- 2026.5.30. 3국 국방장관은 필러 2의 첫 시그니처 프로젝트로 UUV[29] 탑재 임무 장비와 지원체계의 공동개발을 발표했으며, 2027년부터 인도 개시 예정

○ 제3국 참여

- 필러 2는 프로젝트별로 새 파트너가 기여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며, 2024.4. 3국 국방장관이 추가 파트너 참여 원칙을 발표

26) 각 단계는 순차적으로 시작되나 서로 중첩되어 병행 추진되며, '최근 진행'은 각 단계의 향후 인도를 위한 준비 상황을 포함
27) SRF-West: 서호주 잠수함 순환배치 전력(Submarine Rotational Force-West, SRF-West)
28) 첨단전략능력가속기구(Advanced Strategic Capabilities Accelerator, ASCA): 파괴적 신기술을 호주 산업계·연구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방위 능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설립
29) 무인수중정(Uncrewed Undersea Vehicle, UUV): 사람이 타지 않고 수중에서 운용되는 이동체

- 2024.9. 3국 정상은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과 필러 2 협력 가능성을 협의 중이라 밝히고, 일본과는 해양 자율체계 상호운용성을 초기 협력 분야로 모색 중이라고 언급
- 일본은 2025.7. 탈리스만 세이버(Talisman Sabre)[30] 25에서 호주·영국·미국과 해양 자율체계 실험 연습에 참가

□ 3국 방위산업 기반 협력

○ 추진 방향

- (기술이전) AUKUS 무면허 환경(licence-free environment)[31]을 통해 미국·영국과의 방산 기술이전·무역 협력을 확대하고, 제외기술목록(ETL)[32] 등 방산 무역 장벽 축소 추진
- (정렬) 3국 방산 혁신·조달 체계를 정렬해 역량 개발과 인도를 원활화
- (참여) 산업계와 사모펀드 기업이 AUKUS에 참여하는 기준·경로·체계 마련

○ 이행 현황

- 2026.5.30. 3국 국방장관은 제외기술목록을 신속하고 실용적인 조치로 줄여 무면허 환경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지지
- 같은 성명에서 첨단역량산업포럼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3국 방위산업 기반 협력 심화를 확인

□ AUKUS 외 안보협력 체제

○ 다층 협력 체제

- 호주는 AUKUS 외에도 동맹, 소다자, 양자 전략 파트너십, 지역·다자 체제로 구성된 협력망을 운영하며, 이를 역내 안정과 억제력 강화, 우호적 역내 세력균형 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
- 국제 협력을 상호운용성 증진뿐 아니라 국제 기술·역량·시장 접근 확대와 자국 방위산업 기반 성장을 뒷받침하는 산업 협력 가속의 수단으로도 활용
- 2024 NDS 이후 파푸아뉴기니와 상호방위조약(2025. 10. 서명, 2026. 7. 발효), 인도네시아와 공동안보조약(2026. 2. 서명) 등 양자 틀을 상향

30) 탈리스만 세이버(Talisman Sabre): 호주가 주관하는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합동군사연습으로, 격년(홀수 해)으로 실시 (2025년 연습은 7월에 개최되었으며, 다음 연습은 2027년 예정)
31) 2024년부터 호주·영국·미국 3국 사이에서 대부분의 방산 물품·기술·서비스를 개별 수출허가 없이 이전할 수 있게 한 상호 제도
32) 제외기술목록(Excluded Technologies List, ETL): AUKUS 무면허 환경(수출허가 면제 제도)에서 제외되는 민감 품목·서비스의 목록으로, 해당 품목은 허가 대상

<호주의 주요 안보협력 체제>

구분	주요 체제 및 협력 대상
동맹	미국(국가 안보의 근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호주의 가장 새로운 동맹, 상호방위조약)
소다자	미·일·호 3자 협력, 미·일·호·필리핀 협력, 쿼드(미·인·일·호)
양자 협력	일본(특별 전략적 파트너십), 인도(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인도네시아(공동안보조약·방위협력협정), 싱가포르(방위협력 강화 MOU), 한국(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방산 협력 MOU)
지역·다자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5개국 방위협정(FPDA), 파이브아이즈, EU(안보·국방 파트너십), NATO

자료원: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 2026 National Defence Strategy, 시드니무역관 정리

○ 국제 방산 협력 방식

- 호주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파트너와 국방에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공동개발·공동생산·공동유지 기회를 추진
- 정부 간 약정을 통해 호주 방위산업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AUKUS 3국 간에는 무면허 환경 확대와 제외기술목록 축소 등 수출통제 완화를 추진

4. 방산조달 및 시장 진입 환경

□ 조달 체계 및 절차

○ 사업 추진 절차

- 호주는 2026.7.1.부터 개편된 국방역량체계(Defence Capability System)를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며, 통합투자계획(IIP)에서 재원을 받는 모든 사업에 적용
- 사업은 설계(NDS·IIP 수립) → 개발(정부의 1차·2차 심사) → 도입(승인된 사업의 조달) → 유지·폐기 순으로 진행되며, 모든 사업 제안에 대해 정식 사전 심사(Gate Zero)와 기성품(MOTS/COTS) 옵션 검토가 요구됨
- 2027.7.1. 국방조달청(Defence Delivery Agency)이 도입·유지·폐기와 방산 기반 관리를 맡고, 2026.7.1.~2027.6.30.에는 국방조달그룹(Defence Delivery Group)이 전환 기능을 수행

○ 입찰 방식

- (경로) 입찰(tender), 상시 구매계약(standing offer), 조달 패널[33] 등 연방 표준 방식으로 진행하며, 조달 정보는 연방 조달 포털 AusTender에 공지

33) 조달 패널: 상시 구매계약에 선정된 공급업체가 여러 곳일 때 부르는 이름. 정부 기관은 이 선정 업체들에 필요할 때 견적을 요청하며, 새 패널은 보통 공개 입찰로 구성되고 주기적으로 갱신

- (변화 방향) 정부는 조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방부에 최소 실행 가능 계약(minimum viable contracting) 방식을 지시했으며, 입찰·계약 요건을 사업의 우선순위·규모·복잡성·위험에 비례하도록 조정하고 책임성과 기준은 낮추지 않음
- (업체 부담 완화) 2024 DIDS 이후 표준 국방 계약 템플릿의 입찰 정보 요건(Tender Data Requirements)을 40% 간소화했으며, 하도급 계약상 행정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과 2차 공급업체(Tier 2)의 참여를 확대

○ 기성품 우선 검토(MOTS/COTS)

- (원칙) 모든 사업에서 이미 개발된 군용·상용 기성품(MOTS/COTS) 옵션을 함께 검토
  * 기성품은 개발형보다 비용, 일정 위험, 도입 복잡성이 낮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름
- (비용 명시) 개발형이나 고도 맞춤형 옵션을 선택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정부에 명시
- (사업 초기 심의) 사업 초기에 필요성과 전략 부합성, 인도 옵션, 복잡성·위험을 점검하는 심의 관문(Gate 0, 이번에 재도입)에서 합참차장이 기성품 옵션의 실행 가능성과 검토 적정성을 평가
  · 기성품 기준을 넘는 요건은 사업 주관 부서(Capability Sponsor)가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기성품 옵션이 없는 사업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함

□ 입찰 참여 경로 및 정보 획득

○ 공식 정보원

- AusTender에서 국방부 연간 조달계획, 예정 조달, 진행 중인 시장 접근(ATM)[34] 공고, 계약 공고를 확인할 수 있고, 등록하면 관심 공고를 추적할 수 있음
- 국방부 포트폴리오 예산서(PBS)는 향후 사업 기회를 파악하는 주요 정보원이며, A$100만을 넘는 예정 조달은 국방부 연간 조달계획에 공개

○ 사업 단계별 정보 접점

<사업 단계별 공식 정보 접점>

단계	업체가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정보
사업 선정 전	NDS·IIP, 국방부 예산서(PBS)
입찰 전	연간 조달계획(A$100만 초과 예정 조달), AusTender의 예정 조달
입찰	진행 중인 시장 접근(ATM) 공고(AusTender), 입찰서에 호주산업역량(AIC) 계획서·일정표 포함
계약 이후	계약업체가 호주 업계에 제공할 계획과 예상 기회를 담은 공개 AIC 계획(하도급 기회의 단서)

자료원: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Procurement and export; AusTender; AIC Program), 시드니무역관 정리

34) 시장 접근(Approach to Market, ATM): 잠재 공급업체에 조달 참여를 요청하는 공고(입찰요청서, 견적요청서, 참여의향서 등 포함)

□ 외국 기업이 충족해야 할 요건

○ 현지화: 호주산업역량(AIC) 프로그램

- (근거) 2019년 국방산업참여정책(Defence Policy for Industry Participation, DPIP)에 따라 국방 조달에서 호주 산업 참여 방안을 요구
- (적용 대상) 물자·비물자 조달 A$400만 이상은 호주 산업 일정표 또는 계획서를 포함하고, 입찰가가 A$2,000만을 넘거나 방산 우선분야에 영향을 주는 조달은 AIC 계획서 제출 대상(정부 간 조달도 제외되지 않음)
- (제출 내용) 입찰자는 자사의 접근 방식이 호주 방위산업 역량을 어떻게 높이는지 AIC 계획서에 제시
  · 호주 산업 참여 극대화 전략과 작업 종료 이후에도 이어지는 혜택
  · 호주 중소기업·원주민 사업체 참여 증거
  · 호주 내 혁신 투자, 공동 연구개발
  · 호주 업계의 기술·시스템·인프라·숙련 구축 및 이전
  · 호주 방산 수출 기회 발굴, 글로벌 공급망 기여
- (이행) 계약 단계에서 AIC를 핵심 조항으로 격상하고 독립 감사 프로그램을 운영
- (목적) 외국 주계약자·원제작사(호주 자회사 포함)가 비용 효율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기술이전·지식재산 접근·호주 내 투자를 촉진

○ 보안: 방산산업보안프로그램(DISP)[35]과 정보보호협정(SIA)[36]

- (DISP 의무) 보안 등급 정보·자산 작업, 국방부 무기·폭발성 군수품의 보관·운송, 국방 시설 보안 용역, 계약상 요구 시 가입 필요(예외: 국방 시설·네트워크 내 작업, SIA 인정)
- (외국 법인) 해외 법인은 DISP 회원이 될 수 없으며, 모국이 호주와 SIA를 체결하고 해당 법인의 시설보안인가를 정부 간 수준에서 인정받아야 함
- (한국) 한국은 호주 국방부의 산업 조항 포함 SIA 체결국·기구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로 한·호는 2010년 발효한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
- (한계) SIA가 있어도 비밀정보의 외국 공개에는 국방부 보안원칙체계(DSPF)[37]의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업체는 사전에 계약·사업 관리자와 협의 필요
- (호주 법인 경로) 호주 법인으로 DISP에 가입하려면 호주 사업자번호 또는 법인 번호(ABN/ACN) 등록, 지급능력, 호주 인적보안인가를 취득할 수 있는 보안책임자·보안담당자 지명, 외국 소유·통제·영향(FOCI) 평가·신고, 호주신호국(ASD) 사이버 필수 8대 대책 성숙도 2단계 충족 등이 필요

35) 방산산업보안프로그램(Defence Industry Security Program, DISP): 호주 법인이 가입하는 국방부 보안 회원제
36) 정보보호협정(Security of Information Agreement or Arrangement, SIA): 호주와 상대국이 서로의 비밀정보를 보호·공유하기로 정한 정부 간 협정·약정
37) 국방 보안원칙체계(DSPF): 호주 국방부가 정보·인원·시설·사이버 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정한 원칙·통제 체계

Ⅲ. 주요 기업 및 방산 협력 현황

1. 글로벌 방산기업의 호주 진출 및 협력 현황

□ 영국

○ 함정 현지 건조 및 잠수함 산업기반 구축 협력

- 영국 BAE Systems[38]는 호주 자회사 BAE Systems Maritime Australia를 통해 호주 해군의 헌터급 호위함 사업(SEA 5000 1단계(Phase 1))을 수행
- 헌터급은 영국 BAE Systems의 Type 26 Global Combat Ship 설계를 기반으로 호주 해군의 작전 요구사항에 맞게 개량 남호주 오스본 조선소에서 현지 건조 중
- 함정에는 호주에서 설계·제조된 CEAFAR2 위상배열레이더와 Saab Australia가 개발한 호주형 전투체계 인터페이스(Australian Interface) 등이 적용
- 영국의 함정 설계 역량과 호주의 센서·전투체계 통합 기술 및 현지 방산 공급망을 결합한 대표적인 영·호 해군 방산 협력 사례
- BAE Systems는 호주 국영 잠수함 조선기업 ASC와 함께 호주의 SSN-AUKUS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핵심 산업 파트너로 선정됐으며, 양사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오스본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
- SSN-AUKUS는 영국의 차세대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설계를 기반으로 호주·영국·미국 3국의 기술을 통합하는 AUKUS 협력사업으로, 호주는 현지 건조를 위해 조선 인프라, 전문인력 및 자국 방산 공급망 구축을 추진 중

<남호주 오스본 조선소의 헌터급 호위함 선체 시제 블록 제작 현장>



자료원: BAE Systems

38) BAE Systems: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방산기업으로, 함정·잠수함·군용항공기·장갑차 및 첨단 방산전자 시스템을 개발·제조

□ 미국

○ 유도무기 현지생산 및 첨단 무인체계 공동개발 협력

- 미국 Lockheed Martin[39]은 호주 정부와 협력해 호주 내 GMLRS(Guided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유도탄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5.12. 현지 제조를 시작한 데 이어 2026.4. 호주산 GMLRS의 첫 시험발사를 실시
- 호주 정부는 2026.5. Lockheed Martin Australia와 약 A$1.2억 규모의 GMLRS 핵심부품 현지 제조계약을 체결했으며, Moog Australia[40]는 제어구동장치, AW Bell[41]은 유도탄 외부 핀과 구동장치 하우징 제조를 담당하는 등 현지 공급망 확대와 양국 간 기술·인력 교류가 추진
- Boeing Defence Australia[42]는 호주 공군과 MQ-28A Ghost Bat 협동전투 무인기를 공동개발하고 있으며, 200개 이상의 호주 공급업체가 설계와 제조에 참여하고 사업 지출의 약 70%가 호주 산업에 배분되는 현지 산업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
- Anduril Australia는 호주 해군 및 국방과학기술그룹(DSTG)과 대형 자율무인 잠수정 Ghost Shark를 공동개발하고 있으며, 시제기 개발에 이어 2025년 9월 정비·생산·납품을 위한 5년간 약 A$17억 규모의 계약이 발표됨

<호주 첫 자국산 GMLRS 미사일 시험발사>



자료원: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

39) Lockheed Martin: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방산·항공우주 기업으로 군용항공기·미사일·우주 시스템 및 첨단 방산전자 장비를 개발·제조
40) Moog Australia: 미국 Moog Inc.의 호주 자회사로 방산·항공우주 분야 정밀 구동·제어장치 전문기업
41) AW Bell: 호주 멜버른 소재 정밀주조·금속가공 전문기업
42) Boeing Defence Australia: 미국 Boeing의 호주 방산 자회사

□ 독일

○ 장갑차 현지생산 및 탄약 제조기반 구축 협력

- 독일 Rheinmetall은 호주 자회사 Rheinmetall Defence Australia를 통해 호주 육군의 Boxer 전투정찰차 도입사업(LAND 400 Phase 2)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 211대 가운데 독일에서 생산된 초기 물량 25대를 제외한 후속 물량을 퀸즐랜드 레드뱅크의 군용차량 전문생산시설(MILVEHCOE)에서 현지 생산
- Rheinmetall은 호주 방산기업 NIOA와 합작기업 Rheinmetall NIOA Munitions를 설립해 퀸즐랜드 메리버러에 155mm 포탄 탄체 가공시설을 구축했으며, 2026.6. M795[43] 155mm 고폭탄 탄체의 현지 제조역량 확대를 발표하는 등 탄약 분야에서도 호주 내 생산기반과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음

<호주 레드뱅크 생산시설의 Boxer 전투정찰차>



자료원: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

□ 일본

○ 모가미급 호위함 도입 및 현지건조·운용지원 협력

- 일본 미쓰비시중공업(Mitsubishi Heavy Industries)은 호주 해군의 범용호위함 도입사업(SEA 3000)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 4월 개량형 모가미급 호위함 초기 3척의 건조계약을 체결해 일본에서 건조한 첫 함정을 2029년 호주 해군에 인도할 예정

43) M795: 미국이 개발한 155mm 고폭 포탄으로 M777 견인곡사포 등에서 운용되며 적 병력·장비·시설 타격에 활용

- 호주 정부는 후속 함정을 서호주에서 현지 건조하는 방향으로 일본 정부 및 기업과 협력하고 있으며, 헨더슨 방위단지(Henderson Defence Precinct) 통합 및 생산기반 정비와 연계해 일본의 함정 설계·건조 역량을 활용한 지속적인 해군 조선기반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
- 양국 국방장관은 2026.4. '모가미 협력각서(Mogami Memorandum)'에 서명해 호위함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과 향후 방산 협력 확대 의지를 공식화함

<2026 호주·일본 국방장관회담>



자료원: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

2. 한국 방산기업의 호주 진출 및 한·호 협력 현황

□ 우리기업의 호주 방산시장 진출 현황

○ 한화의 AS9 자주포·AS10 장갑탄약보급차 공급 및 현지생산

- 호주는 육군 포병의 기동성·화력 및 운용인력 방호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LAND 8116 1단계[44] 자주포 도입사업을 추진했으며, 한화는 K9 자주포 계열 기술을 기반으로 호주 요구사항에 맞춘 AS9 자주포와 AS10 장갑탄약보급차 공급사업을 수주
- 호주 정부는 2021.12. 한화디펜스 호주법인 (Hanwha Defence Australia, HDA)와 약 A$1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에는 AS9 30대, AS10 15대 및 대포병레이더 등이 포함

44) LAND 8116 1단계(Phase 1): 호주 육군의 기동화력과 방호력 강화를 위해 AS9 자주포 30대와 AS10 장갑탄약보급차 15대 등을 도입하고 현지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 초기 차량은 한국에서 생산하고 후속 물량은 호주에서 제조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며, 2025년 한국 생산 차량 인도에 이어 2026년 초 호주에서 생산된 AS9 첫 3대가 공개됨
- HDA는 현지 생산시설에서 호주군 운용·정비인력 교육도 실시하고 있어 장비 공급, 현지 생산 및 교육·정비지원이 결합된 방산 협력 사례로 평가

<호주 현지 생산 AS9 헌츠맨 자주포>



자료원: Hanwha Defence Australia

○ 레드백 보병전투차 도입 및 호주 생산거점 확대

- 호주는 노후 M113 장갑차를 대체하고 보병의 방호력과 전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LAND 400 3단계[45] 사업을 추진했으며, 한화가 레드백 보병전투차 사업을 수주하면서 기존 자주포 사업에 이어 호주 내 궤도형 전투차량 생산기반을 확대
- 2023.12. 레드백 129대 도입 및 초기 지원 계약이 체결됐으며, 계약금액은 약 A$45억이며, 호주 정부가 발표한 전체 사업가치는 약 A$70억 규모
- 레드백은 빅토리아주 질롱 소재 한화 장갑차 생산센터(H-ACE)를 중심으로 현지 생산되고 있으며, H-ACE 1단계 시설은 2024.8. 개소하고 레드백 생산을 위한 2단계 확장시설은 2026.2. 완공

45) LAND 400 3단계(Phase 3): 호주 육군의 노후 M113 장갑차를 대체하고 보병의 방호력과 전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레드백 보병전투차 129대를 도입·현지 생산하는 사업

〈호주 한화 장갑차 생산센터(H-ACE) 전경〉



자료원: Hanwha Defence Australia

□ 한·호 방산기업 간 공동개발·기술협력 현황

○ 한화시스템·HDA·Visionary Machines 간 대드론 기술 공동평가

- 전장에서 드론 위협이 확대됨에 따라 장갑차의 생존성과 상황인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탐지·추적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한국의 차량·방산전자 기술과 호주의 드론 탐지·추적 기술을 결합하는 협력이 추진
- 한화시스템과 HDA는 2025.3. 호주 센싱 기술기업 Visionary Machines와 공동 개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3자 양해각서를 체결
- 2026.9.에는 Visionary Machines의 Pandion Sentinel 드론 탐지·추적 기술을 레드백 보병전투차에 적용하는 공동 평가 단계에 진입했으며, 현재 대드론 센싱 기술의 차량 통합 가능성과 방호 및 상황인식 향상 효과를 검증하고 있음

〈레드백 보병전투차의 대드론 탐지·추적 기술 협력〉



자료원: Hanwha Defence Australia

Ⅳ. 한·호 방산 협력 전망 및 우리기업 진출전략

1. 유망 협력 분야 및 시장 기회

□ 협력 기반

○ (정부 차원) 양국은 고위급 교류를 통해 방산 협력 의지를 꾸준히 확인

- 2024.5.1. 제6차 한·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멜버른)에서 K9 자주포·레드백 보병전투차량의 호주 내 생산을 포함한 방산 협력이 호혜적이라는 인식을 공유
- 2025.11.1. ADMM-Plus 계기 국방장관회담에서 고위급 교류, 연합훈련, 첨단기술 공유, 방위산업 등 협력 확대 발전에 합의
- 호주 국방장관은 2026.6.2. 연설에서 한화가 한국 외 최대 시설을 호주에 두기로 한 결정이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 연내 한국 국방장관과 협력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언급
- 호주 2026 NDS는 한국과 역량·방위산업·혁신과학기술 분야 등 호주 이익에 부합하는 분야 중심의 선별적 협력을 모색

○ (산업 차원) 한화는 지상체계 현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해양 분야로 확장 중

- HDA는 질롱 H-ACE에서 AS9 자주포·AS10 장갑탄약보급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레드백 보병전투차량 129대는 2027년 인도 개시 예정
- H-ACE는 2024.8. 1단계가 개소하고 2026.2 2단계가 완공되었으며 투자 규모는 약 A$2.2억

- 한화그룹은 2025.12.12. 호주 재무장관의 승인으로 호주 조선사 Austal 지분을 9.9%에서 최대 19.9%까지 확대

* 호주 재무장관은 19.9% 초과 취득을 불허하고 민감 지식재산 접근과 이사 선임에 제한을 두겠다고 밝힘
* 기업별 현황은 제3장 제2절 참조

□ 유망 협력 분야

○ 호주 정부가 명시한 수요와 한국 측 협력 여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

<한·호 방산 협력 유망 분야>

분야	호주 수요(확인된 사실)	협력 여지(무역관 판단)
지상체계 생산·유지	레드백·자주포 현지 생산 진행(2026~30년 국내 정비·수리·개량·수출 역량 확대)	- H-ACE 연계 Tier 2·3 부품·정비 공급 - HDA 공개 AIC 계획에 하도급 발주가 포함되어 접근 경로 확인 가능
조선·해양	연속 조선·유지 우선분야, Austal이 서호주 전략조선사로 지정(2025.8), 한화 지분 최대 19.9% 승인	- 스마트 야드·생산성 기술 협력 가능성 - 다만 일본 측 우려가 보도되어 협력 방식 조율 필요
유도무기·폭발물	NSM·JSM 2027년부터 국내 제조, 호주 업체가 호환·인증 가능한 부품 제조	- 한국 체계의 직접 편입보다 부품·서브시스템 공급 형태가 현실적(공동생산 대상은 미국·노르웨이 체계 중심)
자율·무인체계	ASCA 등을 통한 투자 확대	- 2024.9. 3국 정상 성명에서 AUKUS 필러 2 협력 가능성이 언급되는 한편, 한국 참여 확정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모니터링 필요

자료원: 2026 Defence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Hanwha Defence Australia, LAND 400 Phase 3 Public AIC Plan(2025.8.); Defence, AUKUS 관련 공동성명; The Nightly, 시드니무역관 정리

□ 시장 확대 요인과 제약 요인

○ (확대 요인) 호주의 조달 개혁이 신규 진입 기업에 우호적

- 모든 사업에서 기성품(MOTS/COTS) 옵션을 함께 검토하고, 입찰 초기 정보 제출 요건을 간소화하며, 신규 진입 기업의 창구로 방위산업 허브를 신설

○ (제약 요인) 한·호 협력의 구조적 한계

- East Asia Forum은 호주의 투자 우선순위가 해양·공중으로 이동하는 반면 한·호 협력은 지상체계 조달 중심이라고 지적

- 호주 NDS는 일본을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규정하고 개량형 모가미급 호위함 선정으로 협력을 심화했으며, 한화의 Austal 지분 확대 승인에 대해서는 일본 측 우려가 보도됨
- 레드백은 당초 약 450대 구상에서 129대 계약으로 물량이 축소
- 호주는 자주성 확보를 위해 현지 생산과 호주산업역량(AIC) 계획 제출을 요구

2. 한국기업 진출전략

□ 진출 경로별 고려사항

○ (주계약업체 공급망 진입) 한화디펜스 호주법인(HDA) 등 주계약업체의 하도급에 참여

- HDA는 LAND 400 3단계 공개 AIC 계획에서 하도급 발주 예정 규모를 약 A$25억(GST 포함), 호주 산업 참여율을 39% 초과로 제시
- 공개 AIC 계획은 하도급 기회의 단서이나 호주 업체 대상이므로, 한국 업체는 호주 법인 설립 또는 한화 협력망을 통한 진입 방식 검토 필요

○ (직접 입찰) 보안 등급 사업은 호주 법인을 통한 참여가 사실상 필요

- 호주 보안 등급 정보를 다루는 사업은 방산산업보안프로그램(DISP) 가입이 요건이며 외국 법인은 가입 불가
- 한국은 정보보호협정(SIA) 체결국이나 시설보안인가의 정부 간 인정과 국방 보안 원칙체계(DSPF) 절차가 별도로 필요

○ (기성품 제안) 모든 신규 사업에서 기성품 옵션을 함께 검토하므로, 검증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은 사업 초기 심의(Gate 0) 단계의 정보 확인이 중요

○ (정보 확보) AusTender, 국방부 연간 조달계획(A$100만 초과 예정 조달), 포트폴리오 예산서(PBS)를 상시 모니터링

□ 단·중장기 시장 진출 제언

○ (단기) 현재 가시성이 높은 진출 기회는 H-ACE 연계 지상체계 공급망으로, 중소·중견기업은 한화 등 기존 프라임 협력사 공급망을 통한 진입이 현실적

○ (중장기) 해양·무인·유도무기 분야는 향후 수요 확대가 예상되나 미국·일본·유럽계 글로벌 방산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한·호 정부 간 방산 협력 및 주요 획득사업 추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

【참고자료】

[정부 문서]

·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 2026 National Defence Strategy(2026.4.16.)
· Defence, 2026 National Defence Strategy Overview Factsheet(2026.4.)
· Defence, 2026 National Defence Strategy Budget Factsheet(2026.4.)
· Defence, 2026 Integrated Investment Program Overview Factsheet(2026.4.)
· Defence, 2026 Integrated Investment Program(2026.4.16.)
· Defence, Rebuilding Defence Capability(2026.7)
· Defence, 2026 Defence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2026.7.2.)
· Defence, 2026 Defence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Factsheet(2026.6.)
· Defence, 2026 Defence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Detailed Sovereign Defence Industrial Priorities, Annex A(2026.7.)
· Defence, Portfolio Budget Statements 2026-27, Defence Portfolio(2026.5.)
· Defence, Security of Information Agreements/Arrangements Fact Sheet(2024.4.)
· Defence, Australian Industry Capability Program
· Defence, Hunter-class Frigate
· Defence, Land Combat Vehicle System–Infantry Fighting Vehicle(LAND 400 Phase 3)
· Defence, Henderson Defence Precinct
· Defence, Defence Strategic Sales
· Defence, Defence Industry Security Program: Eligibility and Suitability
· Defence, Defence Procurement Complaints Scheme
· Defence, Procurement and export
· Defence, Guided Weapons and Explosive Ordnance Enterprise
· Defence, Defence Policy for Industry Participation(2019.3.)
· Defence, Defence Security Principles Framework, Principle 16, Control 16.1(DISP)
· Defence, AUKUS Advanced Capabilities–Industry engagement
· Defence, HDA, LAND 400 Phase 3 Acquisition Public AIC Plan(2025.8.)
· Australian Government, AusTender
· Minister for Defence, 2026 National Defence Strategy and Integrated Investment Program (media release)(2026.4.16.)
· Minister for Defence, Speech to the National Press Club(2026.4.16.)
· Minister for Defence, Australia locks in delivery of our first three general purpose frigates (2026.4.18.)
· Minister for Defence, Contracts signed for Infantry Fighting Vehicles(2023.12.8.)
· Minister for Defence, $1 Billion Defence Contract for Sovereign Defence Manufacturing Facility in Geelong Announced(2021.12.13.)
· Minister for Defence, Speech to the 2026 Defending Australia Summit(2026.6.2.)
· Prime Minister, Australia and Canada sign landmark agreement on Over the Horizon Radar export(2026.6.22.)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ustralian Defence Industry Account, experimental estimates, 2024-25 financial year (2026.4.17.)
· Department of Finance, Commonwealth Procurement Rules, Appendix B: Definitions
· ANAO, Auditor-General Report No. 16 2025-26, 2024-25 Major Projects Report(2025.12.)
· ANAO, Maximising Australian Industry Participation through Defence Contracting

[AUKUS 관련]

· AUKUS Defence Ministerial Joint Statement(2026.5.30.)
· Defence, Joint Statement, USS Colorado(SSN 788) Announced as First Submarine for Submarine Rotational Force–West(2026.10.27.)
· AUKUS Defence Ministers, Joint Statement, AUKUS Defence Ministers' Meeting(2024.4.8.)
·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Joint Leaders Statement to Mark the Third Anniversary of AUKUS (2024.9.17.)
· Japan Ministry of Defense, Japan's participation in an experimental exercise on maritime autonomous systems under AUKUS Pillar II(2025.7.)
· AUKUS Pillar II Fact Sheet: Uncrewed Undersea Vehicles–payloads and enabling systems(2026.5.30.)
· Minister for Defence, The AUKUS nuclear-powered submarine pathway(2023.03.22.)

[한·호 협력 관련]

· DFAT, Republic of Korea country brief
· DFAT, Australia-Republic of Kore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 Defence, Australia-Republic of Korea 2+2 Joint Statement(2024.5.1.)
· MND Republic of Korea, S. Korea-Australia Defense Ministerial Meeting Held on the Sidelines of the 12th ADMM-Plus(2025.11.17.)
· Australian Parliament JSCT, National Interest Analysis [2010] ATNIA 20, Agreement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2009.5.30.)
· Defence, Defence industry builds ties with South Korea (2025.8.21.)

[AUKUS 외 안보협력 체제]

· Prime Minister, Alliance with Papua New Guinea enters into force(2026.7.8.)
· DFAT, Treaty on Common Security (Indonesia)(2026.2.6.)
· Minister for Defence, Australia-Indonesia Defence Cooperation Agreement Signed(2024.8.29.)
· Australia-Japan Defence Ministers' Meeting Joint Statement(2026.4.18.)
· Minister for Defence, Australia and Singapore Enhance Defence Cooperation(2025.10.8.)
· Prime Minister, Australia-India Joint Declaration on Defence and Security Cooperation(2026.7.)

[기업 홈페이지]

· Hanwha Defence Australia (HDA), First Australian-made AS9s Debut in Geelong(2026.2.26.)
· Boeing Defence Australia, Boeing Awarded $754 million Ghost Bat Program of Record(2025.12.9.)
· Army Technology, AS21 Redback Infantry Fighting Vehicle

[보도자료·분석]

· Radio New Zealand, US says Pentagon review sees opportunities to strengthen AUKUS submarine deal(2025.12.5)
· Ocean News, USS Colorado Named First Submarine for AUKUS Rotational Force West(2026.10.)
· Defence Industry Europe, Britain's Submarine Delivery Agency says UK aims to double production for up to 12 SSN-AUKUS submarines (2026.10.31.)

· Overt Defense, South Korea Interested in Joining AUKUS Agreement(2024.5.10.)
· East Asia Forum (Joonho Choi), South Korea's digital shipyards could keep Australia's navy afloat(2026.8.29.)
· The Nightly (Andrew Greene, Sean Smith), Hanwha approved for bigger stake in shipbuilder Austal with conditions on sensitive info, says Jim Chalmers(2025.12.12.)
· The Nightly (Andrew Greene), Concerns over delays to Japanese warship program at Henderson after South Korean investment approval
· Naval News, Australia Approves Hanwha Stake Increase in Austal, Raising Japan's Technology Concerns(2025.12.)
· Defense News (Gordon Arthur), Australia orders fleet of large unmanned submarines from Anduril(2025.9.10.)
· Asia Pacific Defence Reporter, Lockheed Martin Australia signs deal for guided weapons (2026.5.31.)
· Defence Connect, National Defence Strategy 2026: Spending on military cyber capability to reach at least $15bn (2026.4.16.)
· Perth USAsia Centre, The 2026 National Defence Strategy: Well designed, poorly timed?(2026.5.1.)

작 성 자

▪ 시드니무역관 황예지
전희정
박근혜

호주 방위산업 동향 및 한·호 협력 방향

Global Market Report 26-085

발 행 일	2026년 11월
발 행 인	강경성
발 행 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13
전 화	1600-7119
홈 페 이 지	www.kotra.or.kr
문 의 처	시드니무역관(+61-2-8233-4000)

• ISBN: 979-11-402-0734-3(95320)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